한국 Private Equity Fund (PEF) 산업 현황 및 향후 과제

SPECIAL REPORT

November 2025

BAIN & COMPANY

Disclaimer

이 보고서는 한국 PEF 산업이 지난 20년 동안 투자 및 경영 참여를 통해 투자수익 창출과 더불어 경제·사회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정량적 데이터를 통해 분석하고, 또한, 선진국 대비 한국 PEF 산업의 현주소에 대한 평가와 향후 지속적 산업 발전을 위한 과제를 제시하려는 목적에서 작성됐습니다.

이 보고서에 사용된 데이터는 AVCJ, Dealogic, Capital IQ, Preqin, 금융감독원, KOSIS, 고용노동부 등 국내외 다양한 공신력 있는 출처에 기반하였으며, 한국 PEF 13개의 투자 포트폴리오 회사 데이터를 결합해 산출했습니다. 각 그래프와 표에는 출처가 병기돼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베인의 사전 명시적 서면 동의 없이 전체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공개해서는 아니 됩니다.베인이 본 보고서를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동의하는 경우에도, 베인은 제3자가 본 보고서에 의존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베인은 이 보고서의 신뢰성, 완전성 또는 정확성에 대해서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어떠한 보증이나 진술도 하지 않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업계 내 비교 및 외부 관점 평가, 그리고 경험적 근거를 기반으로 한 일부 추정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베인은 이 보고서의 어떠한 정보도 업데이트하거나 보완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베인앤드컴퍼니 (Bain & Company, Inc.) 및 그 계열사, 그리고 그들의 임원, 직원 또는 대리인을 포함한 어떠한 개인도 이 보고서의 오류나 누락에 대해 그 누구에게도 어떠한 책임이나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이 보고서가 특정 산업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한 투자 권유로 간주되어서는 안 됩니다.베인은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 보고서 또는 베인이 표현한 그 어떠한 내용도 법률 자문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요약

국내 PEF 업계는 지난 20년간 투자수익을 달성하면서도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가 꼭 필요로 하지만 공공재원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고위험·전략 산업'에 장기 자본을 공급하고, 지속적으로 연구개발 및 설비 증설에 투자를 늘리고 수출을 증대시키며, 정규직 중심으로 일자리와 임금을 끌어올리는 실증적 성과를 만들어 왔습니다. 단, 향후 이러한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 산업 지속 육성과 함께 업계의 고도화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 지난 20년간 국내 PEF 약정액은 2024년 154조원에 도달, 국내 M&A 시장 내 50%+까지 확대
- 국내 PEF IRR이 KOSPI 벤치마크 일관되게 상회, 미국, 영국 등 선진 시장 내에서도 PEF는 경제, 고용의 중추(각각 GDP, 일자리 각각 약 7%, 8%)로 기능 중
- PEF 투자 포트폴리오사는 매출 연 12%, 수출 연 11%로 성장
- R&D, CAPEX 투자 금액 또한 시장 평균 대비 고성장
- 투자 후 추가 유상증자와 볼트온 M&A로 밸류업 가속
- 고용, 임금도 각 연 9%로 시장 평균(각 4%, 3%)을 크게 상회
- 다만 절대 규모의 열위, 자산군 편중, 전문조직 / 글로벌 확장 역량과 LP 다변화의 과제 존재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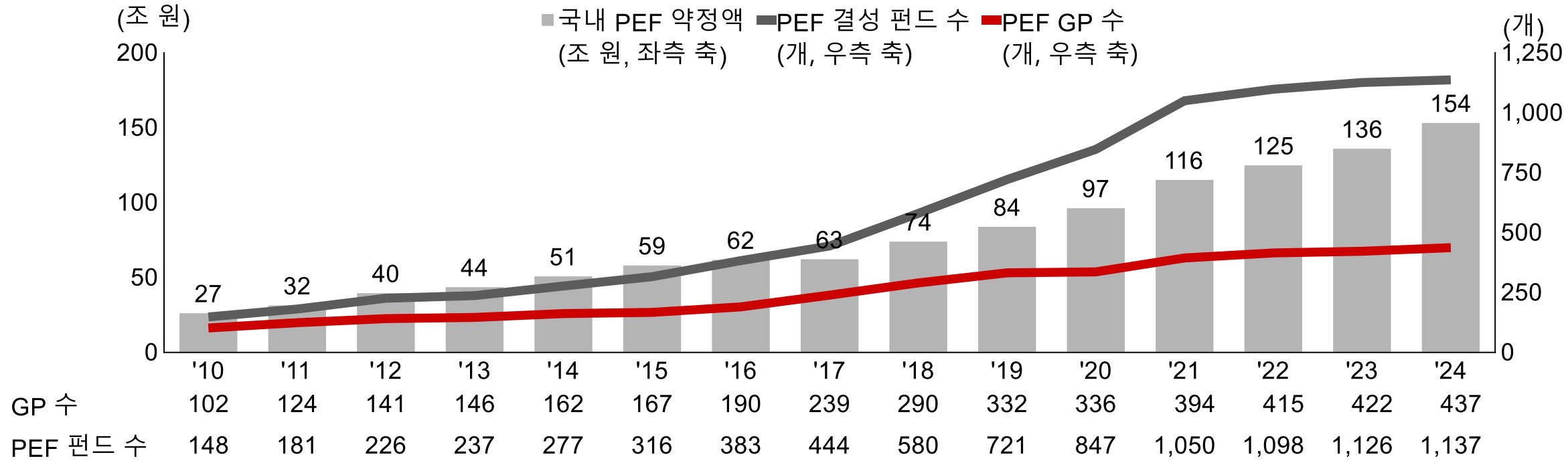
한국 PEF 산업 성장

섹션 요약

- **규모:** 약정액 154조 원, GP/펀드 수 동반 증가, 양적 성장 지속 중입니다.
- **시장 지위 및 투자 구조**: PEF는 국내 M&A의 절반 이상을 담당, 대형 위주에서 다수의 중소형 거래로 시장 구조를 바꿔 왔습니다.
- **성과:** 국내 PEF IRR > KOSPI IRR('13–'18 빈티지 기준)로 일관된 초과수익을 달성해 왔습니다.
- **글로벌 선진 PEF 시장:** 미국, 영국 내 PEF의 GDP, 고용 기여가 각 7%, 8% 수준으로 확인되며, PEF는 주요 연기금, 국부펀드의 핵심 자산군입니다. 한국 역시 같은 추세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국내 PEF 약정액 지속 성장, ‘24년 154조 원 도달

국내 PEF 약정액 및 운용사 수 추이 (’1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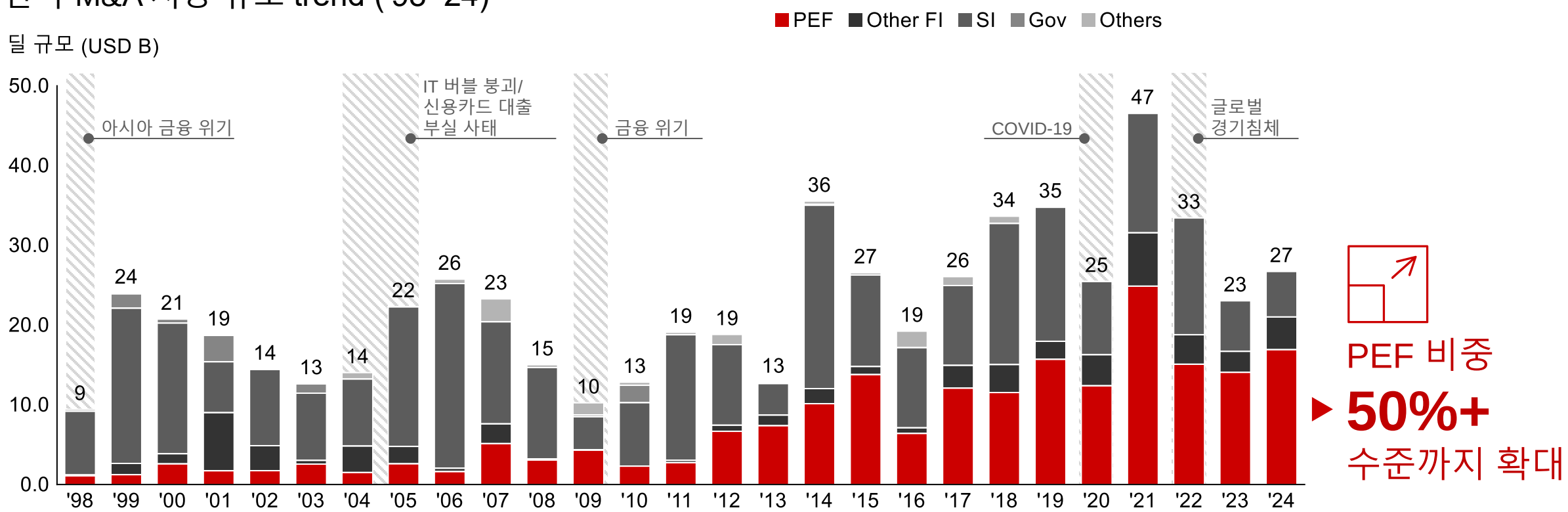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GP 수	102	124	141	146	162	167	190	239	290	332	336	394	415	422	437
PEF 펀드 수	148	181	226	237	277	316	383	444	580	721	847	1,050	1,098	1,126	1,137

Note: 국내 PEF 약정액 - 국내 PEF에 조성된 총 자금 규모를 의미; GP 수 - 해당 약정액을 운용하는 GP(General Partner)의 수로 운용 주체를 의미; 결성 펀드 수 - GP들이 실제로 결성한 펀드의 수
Source: 금융감독원; Bain Analysis

PEF는 국내 M&A 시장 50% 이상 차지하며 핵심 참여자로 부상

한국 M&A 시장 규모 trend ('98-'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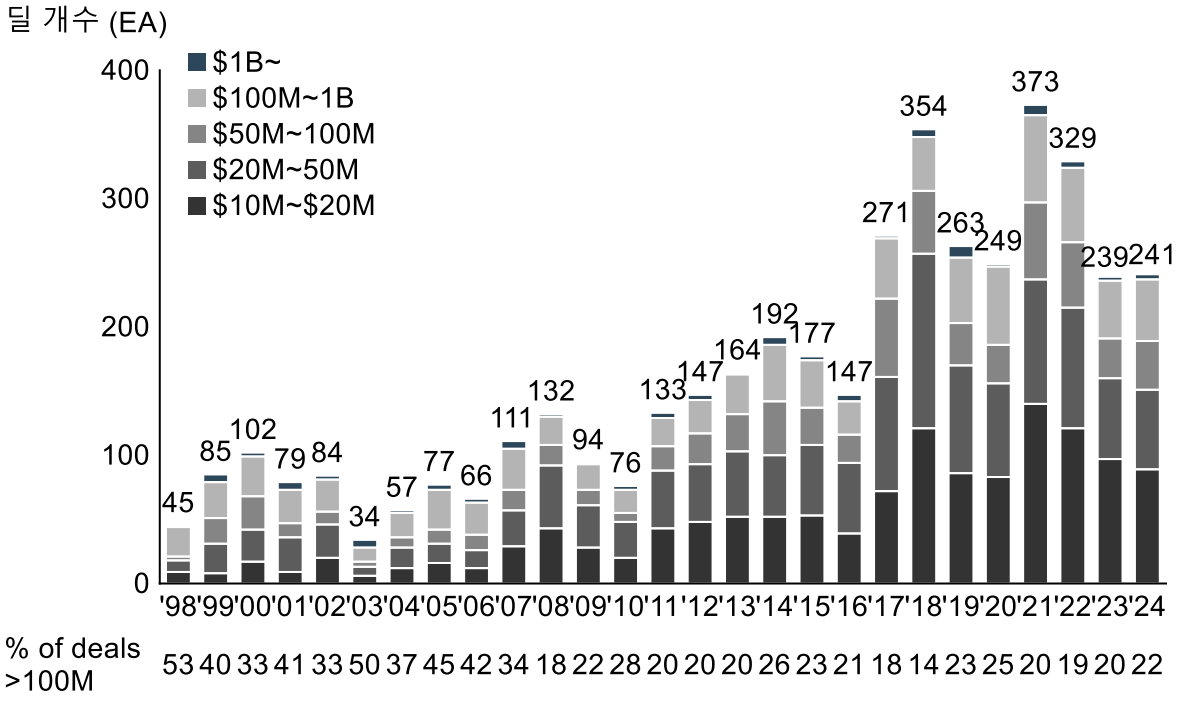


PEF 비중
▶ **50%+**
수준까지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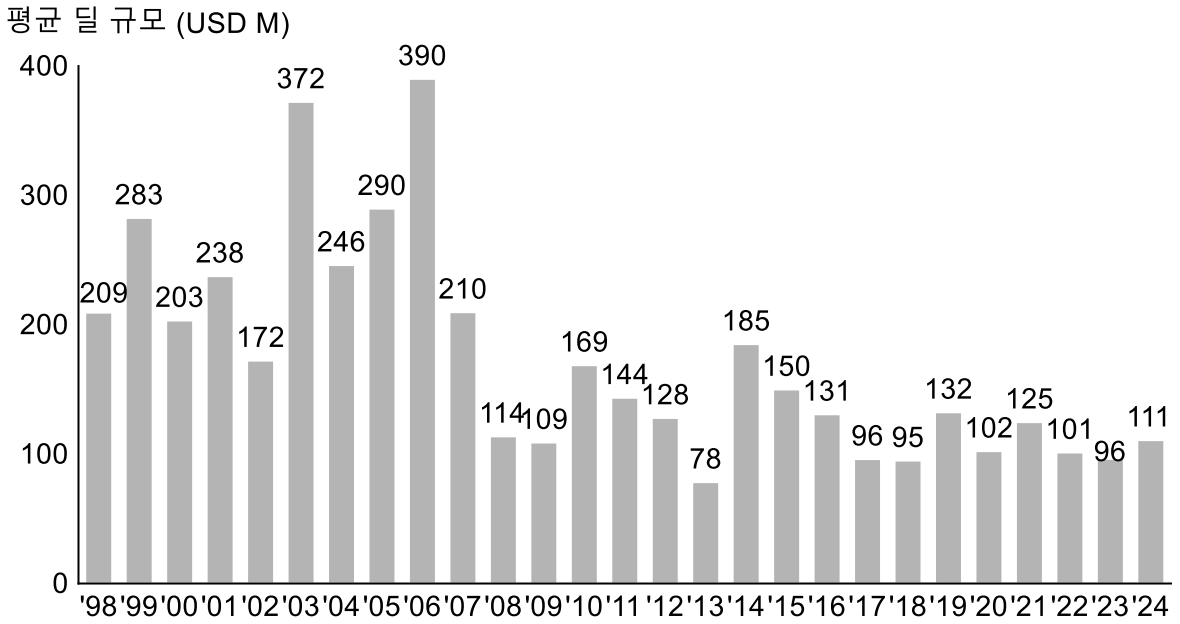
Note: $10M 이상의 한국 업체 M&A 건만 포함하였음; 부동산, SOC성 인프라 딜 제외하였음; 그룹 내 지주사 및 계열사간 딜은 제외 하였음
Source: AVCJ; Bain Analysis

소수 대형 투자 중심에서 다수 중소형 투자로 다변화

한국 M&A 시장 규모 trend (’98-’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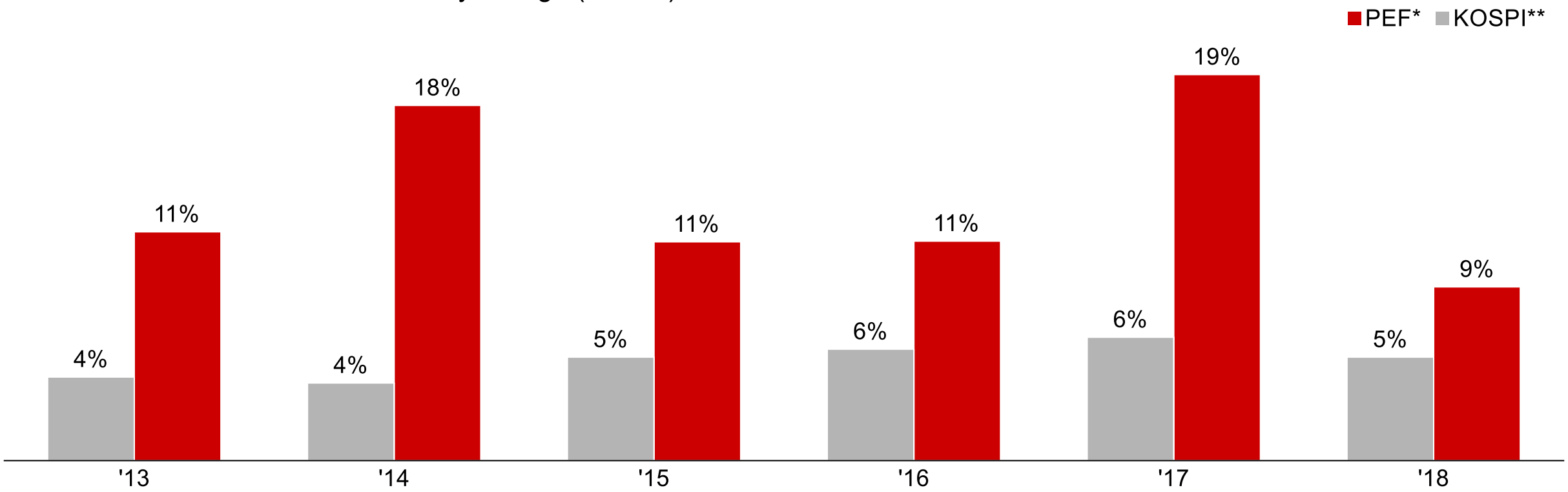
평균 M&A 딜 규모 trend (’98-’24)



Note: $10M 이상의 한국 업체 M&A 건만 포함하였음; 부동산, 인프라 등 딜은 제외하였음
Source: AVCJ; Bain Analysis

국내 PEF는 높은 투자 수익 지속적 달성 중

KOSPI IRR vs 국내 투자 PEF IRR by vintage (’13-’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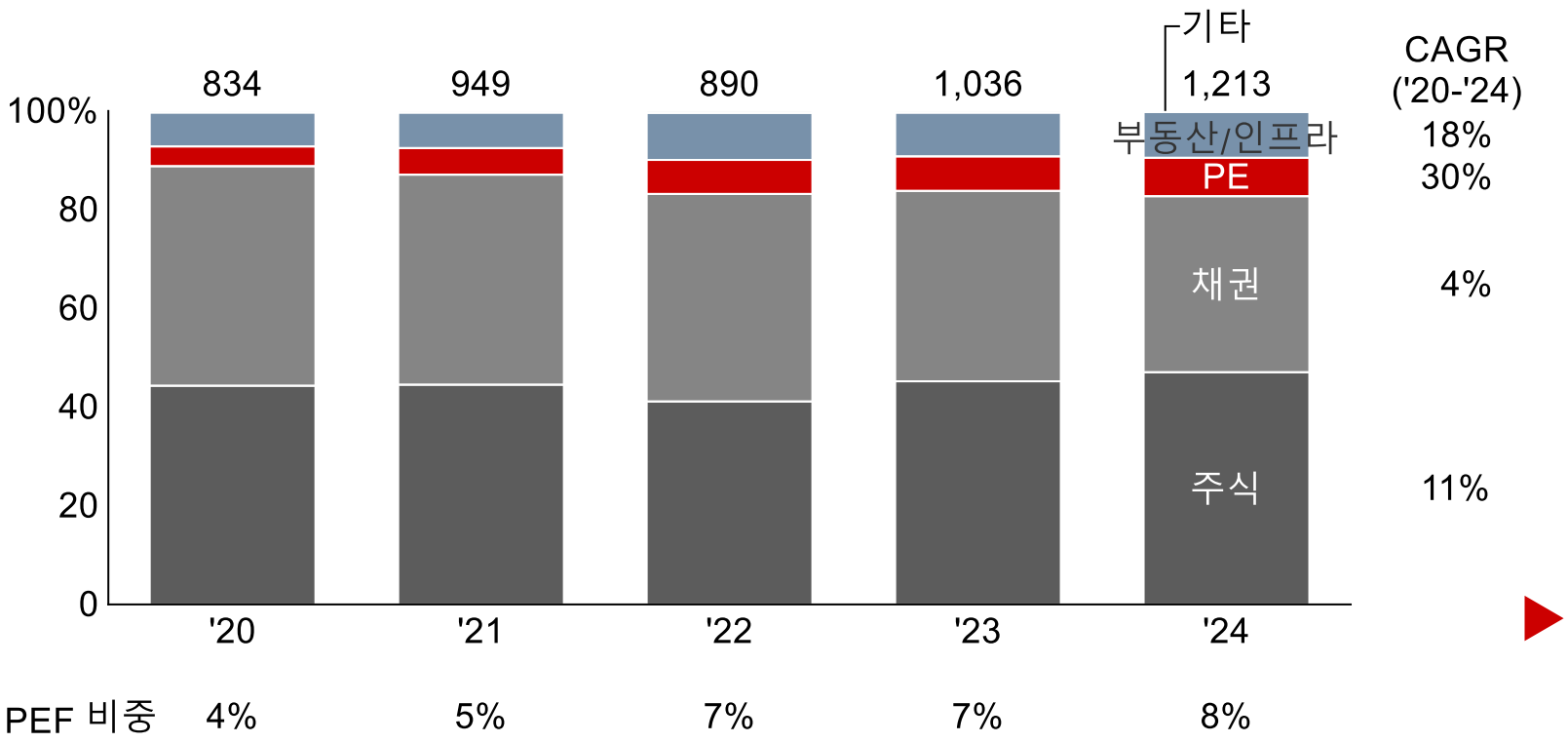


*PEF IRR: ’13년 ~ ‘18년 결성된 한국 기업 투자 펀드 ’24년말 기준 Net IRR (PEF 운용보수 차감) 중앙값; **KOSPI IRR: KOSPI 지수 및 배당 수익률 (PEF 평균 펀드 클로징 이후 3개년에 걸친 펀드 소진, 투자 패턴과 유사한 Vintage 연도 포함 1, 2, 3년 차별 지수 매입 후, 국내 PEF 포트폴리오사 보유 평균 기간과 동일한 4년 보유 후 매도 수익률의 평균 가정)

Source: KOSIS; Preqin; Bain Analysis

PEF는 국내 연기금의 핵심 수익원으로 지속적 출자 비중 확대 중

국민연금 내 PEF 비중 추이 (KRW T)



> *98년 기금이 설치된 이후* ***최고 수익률로 해외·대체투자 비중을 꾸준히 확대한 게 긍정적으로 작용***
>
>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25.03)

> *지난 10년 중 최고 수준의 운용 실적을 달성,* ***대체투자 비중을 75%로 높이면서 변동성이 컸던 시장 상황에 안정적 대응***
>
> 군인공제회 최고투자책임자 ('24.04)

> *공무원연금은* ***대체투자 규모 점진적으로 확대****하면서 다변화 작업 지속할 것*
>
> 공무원연금공단 자금운용단장 ('23.08)

Source: Lit. Search; Bain Analysis

PEF 산업은 선진국 경제, 사회 발전에 핵심적 역할 수행 중

경제

전체 GDP 중 ~7% 기여
(~$2T)

사회

전체 일자리 중 ~8% 기여
(~1천3백만 개)

> ***Private equity is an engine of opportunity in America.*** *PE-backed companies have consistently demonstrated stronger growth*

전 미국 재무부 법무담당 차관보 Drew Maloney

전체 GDP 중 ~7% 기여
(~$240B)

전체 일자리 중 ~8% 기여
(~250만 개)

> *Private equity investment will be* ***key to hitting the government's "number one" target of economic grow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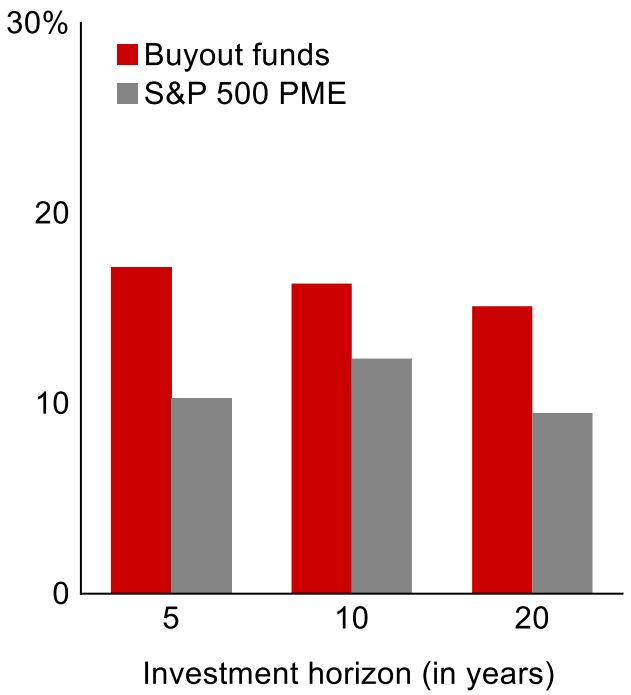
전 영국 재무부 장관 Rachel Reeves

Note: PE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PE사 매출, PE 포트폴리오사 매출, PE 포트폴리오사가 직원에게 제공하는 임금/베니핏을 포함; PE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PE사 고용 인력, PE 포트폴리오사 고용 인력 포함; 미국의 전체 일자리는 비농업 노동력 기준
Source: EY; BCVA; Bain Analy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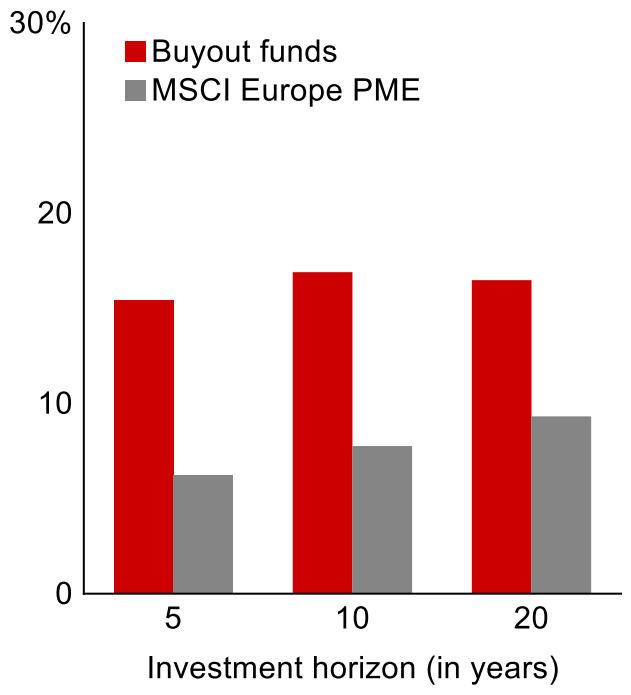
해외 PEF는 중장기에 걸쳐 다른 자산 대비 높은 투자 수익 지속 달성 중

End-to-end pooled net IRR
(as of Q3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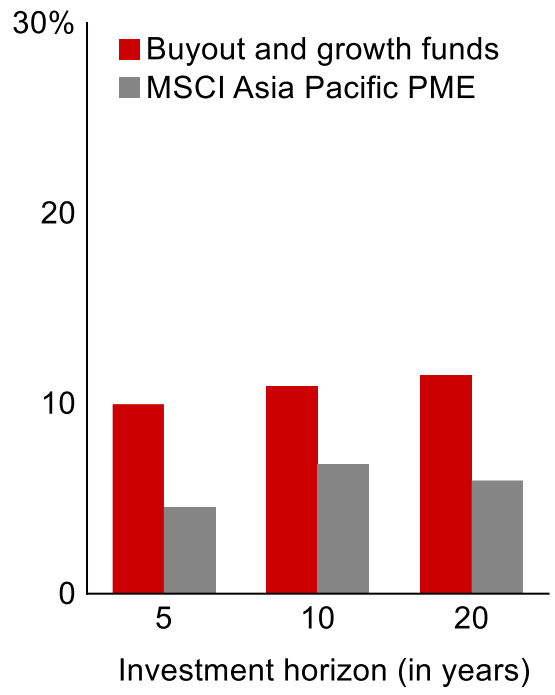
US



Western Europ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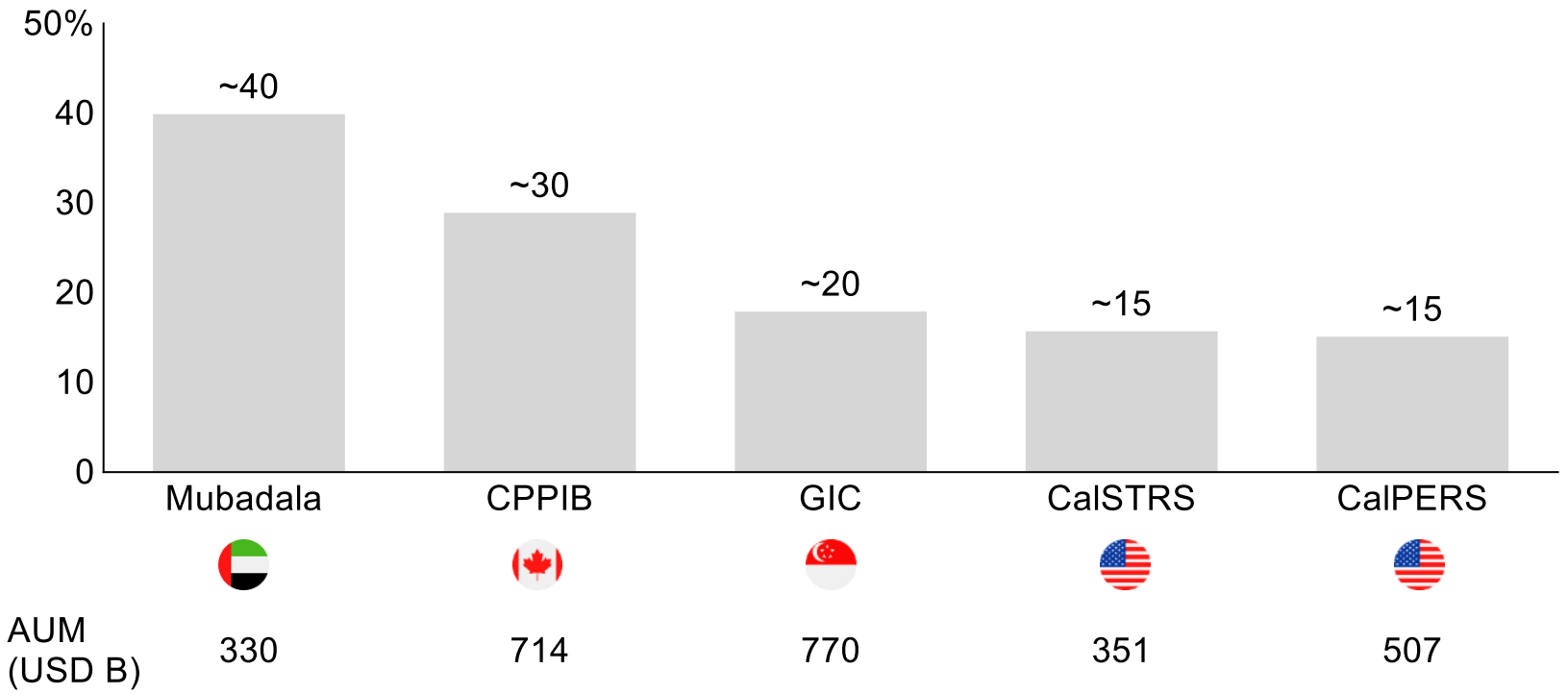
Asia-Pacific



Source: S&P; MSCI; Bain Analysis

PEF는 글로벌 선도 연기금 및 국부펀드의 핵심 운용 자산

전체 운용자산 중 PEF 투자 비중 (%)



Note: Mubadala ('24.12), CPPIB ('25.03), GIC ('24.03), CalSTRs ('24.12), CalPERS ('24.06)
Source: Company Website; IR; Lit. Search; Bain Analysis

> *PEF는 **절대적인 수익률 관점에서 가장 성과가 좋은 자산**으로, 이를 위해 높은 위험을 감수하고 있음*
>
> CPPIB Global Head

> *PEF는 **장기적으로 주식 시장을 능가하는 높은 수익률을 달성**할 것이라 확신하고 있음*
>
> CalPERS CEO

> *GIC의 개정된 정책 포트폴리오에서는 6개의 핵심 자산을 설정하였으며, **PEF는 이 중 하나에 해당**함*
>
> GIC Portfolio Report

02

한국 PEF 산업의 효과

섹션 요약 (1/2)

기업을 '더 크게, 더 멀리'

- PEF가 투자한 기업은 매출(연 ~12%), 수출(연 ~11%)이 빠르게 성장하여 산업 평균을 상회했으며, R&D(연 16%), CAPEX(연 10%) 투자금액 또한 공격적으로 늘렸습니다. 추가 유상증자(평균 690억 원, 최초 투자액의 47%)를 통해 재무구조 개선을 하거나 유관산업에 대한 추가 M&A 등을 통해 지속적 밸류업을 추구하였습니다.

일자리와 임금의 '양'과 '질' 동시 제고

- 포트폴리오 기업의 고용은 연 9.1%, 임금은 연 9.3% 증가해 국내 평균(각 3~4%대)을 지속적으로 상회했습니다. 고용의 질 또한 정규직 비중이 약 94%(국내 평균 약 60%)로 높고, 노무, 안전 등 근로환경 투자를 동반하여 고용의 양과 질이 함께 개선되고 있습니다.

섹션 요약 (2/2)

PEF는 국가적 전략과제의 ‘리스크 흡수 장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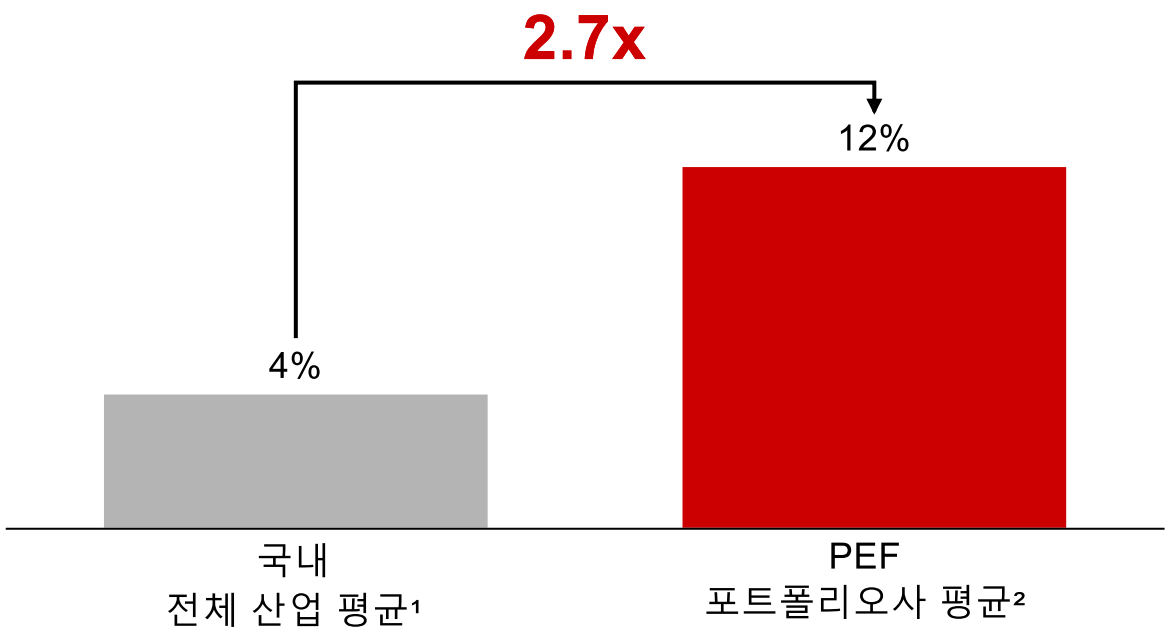
- PEF는 대기업이 아닌 중소, 중견기업 중심으로 누적 1,230억 달러를 공급하며 산업 저변의 체력을 키웠습니다.
- 한국 경제가 다음 단계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높은 리스크에도 전략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산업 – AI, 반도체, 바이오, 신재생, 방위산업 등에 장기 / 활동적 자본 투입이 필요합니다. PEF는 핵심기술 섹터에 약 782건, 누적 570억 달러를 투자하였습니다. 이는 ‘성장가능성 높지만 불확실성도 높은 영역’에 민간이 감수한 위험의 규모입니다.

‘산업의 비효율을 줄이는 구조조정 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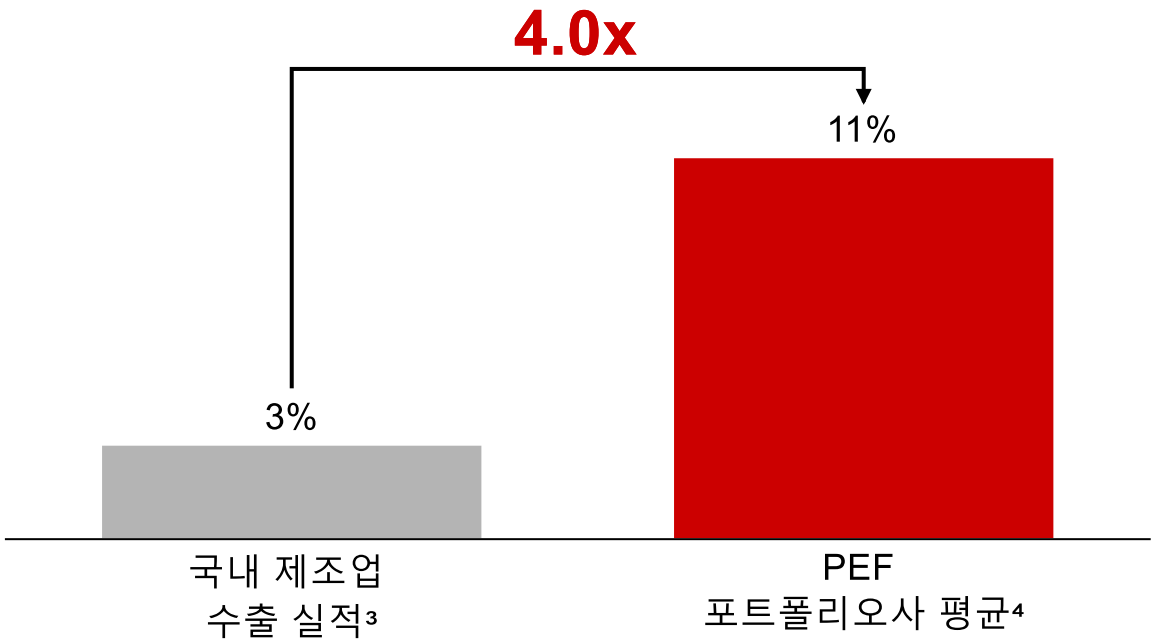
- 대기업의 비핵심 사업을 분리(카브아웃)해 성장시키는 일은 공공정책만으로는 어려운 구조적 과제입니다. 과거 5년간 국내 대기업 비핵심 사업 매각이 누적 150억 달러 규모이고, 이 중 80% 이상을 PEF가 인수하여 자본, 운영 역량, 거버넌스 개선을 통한 산업 효율화 메커니즘을 경제 전반에 작동시키고 있습니다.

PEF 포트폴리오사들의 매출 및 수출 증가율은 산업 평균 훨씬 상회

매출액 연평균 성장률



해외 수출액 연평균 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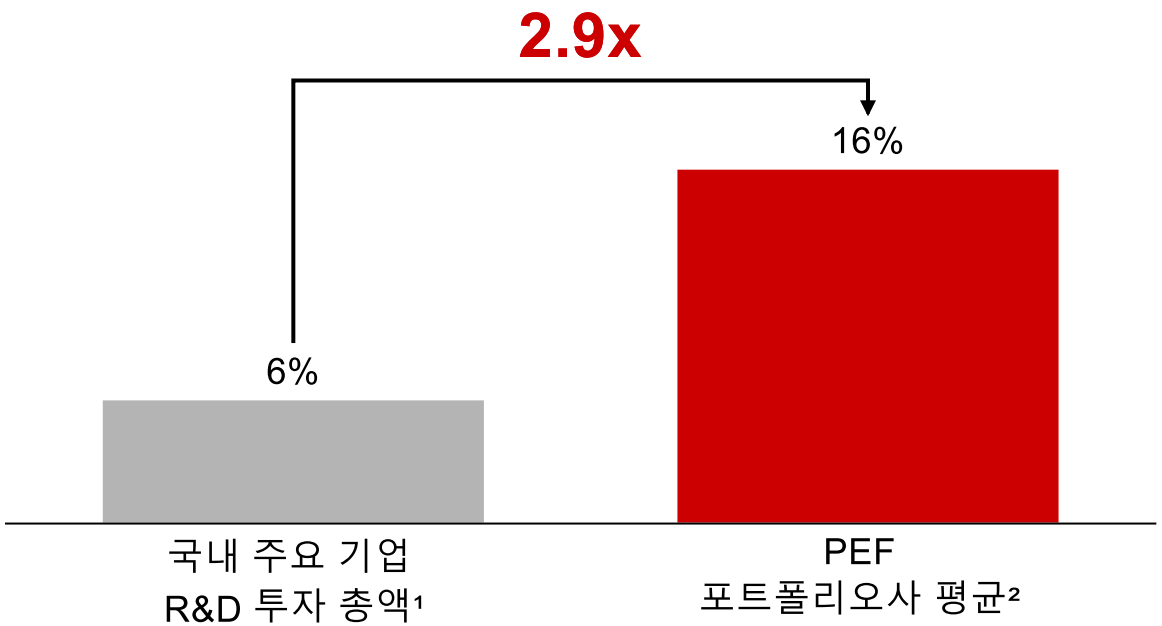


1. '15~'24년 국내총생산(명목 GDP) 연평균 성장률; 2. 13개 GP 포트폴리오사 Entry 시점부터 최근 2024년(Exit 기업은 Entry~Exit 구간) 기준 Outlier(NA or ±200% 초과)를 제거한 304개 기업의 연평균 성장률로 산출; 3. '15~'24년 제조업 전체 수출 실적의 연평균 성장률; 4. 13개 GP 포트폴리오사 중 해외 매출이 Y+0부터 발생한 기업 Outlier(NA or ±200% 초과)를 제거한 107개의 연평균 성장률, Y+0에 1개년도만 매출 발생한 기업 & Y+1 이후 수출매출 발생 기업(성장률 Ramp-up 효과로 인해)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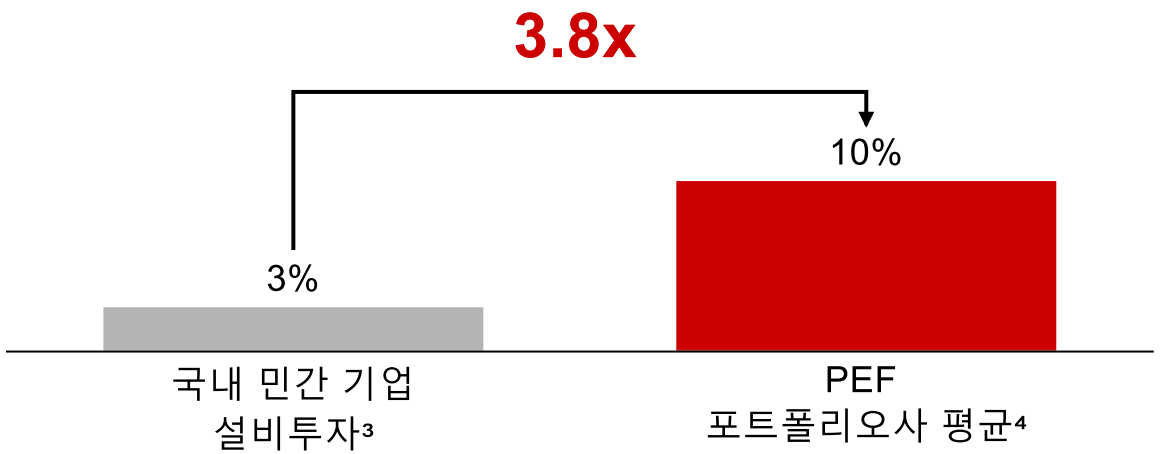
Source: KOSIS; Bain Analysis

지속 성장 및 기업 가치 증대 위해 R&D 및 CAPEX에 적극적 투자

R&D 투자 연평균 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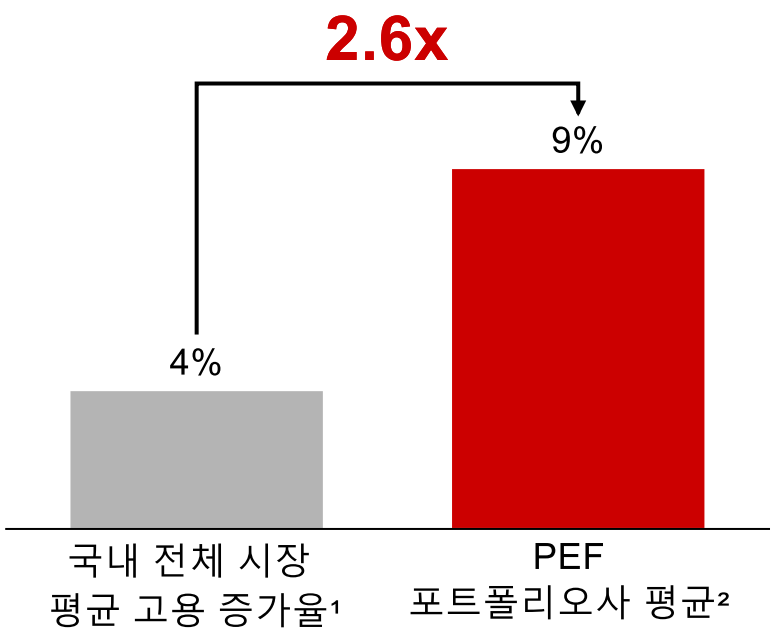
Capex 투자 연평균 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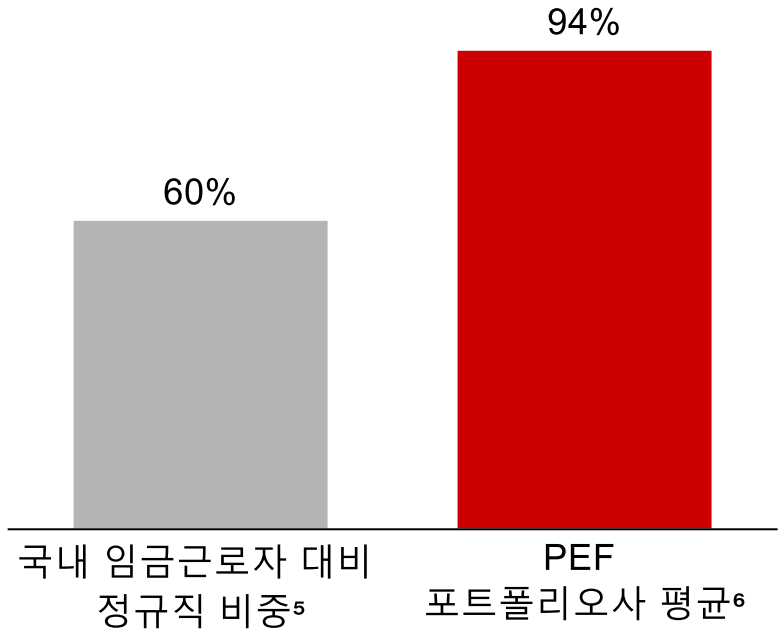
1. '12~'24년 국내 R&D 투자 상위 1,000개의 기업 R&D 투자 연평균 증가율; 2. 13개 GP의 R&D 비용이 발생하는 포트폴리오사 중 Outlier(NA or CAGR ±200% 초과) 제외 한 161개 기업의 Entry 시점부터 최근 '24년까지(Exit 기업은 Entry~Exit 구간) 연평균 성장률을 산출; 3. '15~'24년 10년간 국내 민간 설비투자 비용 연평균 증가율; 4. 13개 GP의 CAPEX 비용이 발생하는 포트폴리오사 중 Outlier(CAGR ±200% 초과) 제외 253개 기업의 Entry 시점부터 최근 '24년까지(Exit 기업은 Entry~Exit 구간) 연평균 성장률을 산출 I Source: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Bain Analysis

정규직 중심 고용 증대, 임금 상승 통한 고용 안정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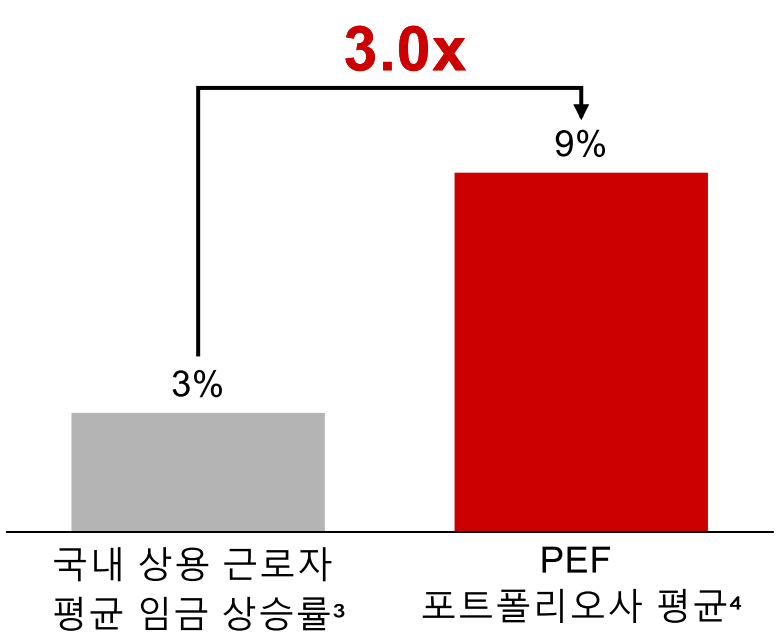
고용 증가율



정규직 비중



인당 평균 임금 상승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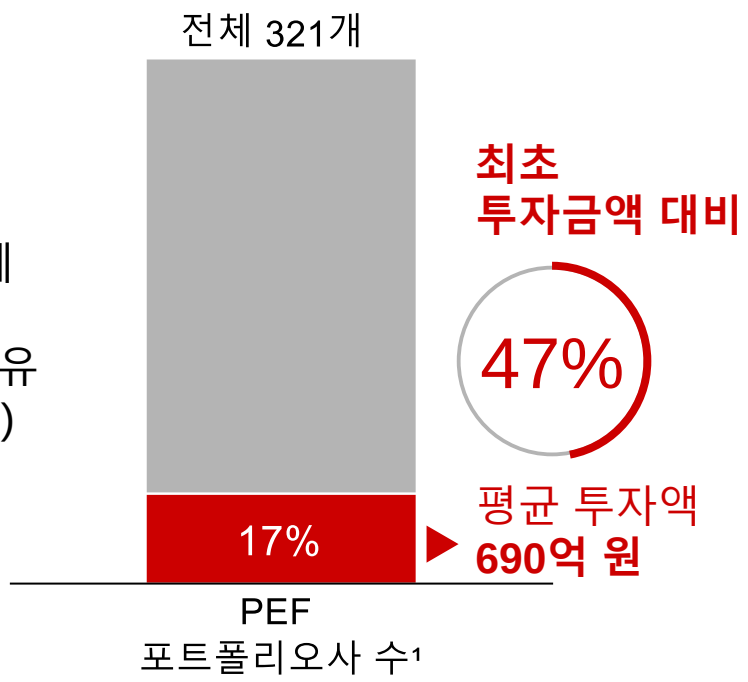
1. '15~'24년 10년간 국내 상용근로자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임금근로자) 수의 증가율; 2. 13개 GP 포트폴리오사 중 임직원 수 확인이 가능한 244개 기업의 Entry 시점부터 최근 '24년까지(Exit 기업은 Entry~Exit 구간) 임직원 수의 연평균 성장률을 산출; 4. '15~'24년 10년간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인당 월평균 임금총액 증가율; 4. 13개 GP 포트폴리오사 중 임직원 수 확인이 가능한 244개 기업의 Entry 시점부터 최근 2024년까지(Exit 기업은 Entry~Exit 구간) 인당 평균 임금의 연평균 성장률을 산출; 5. 최근 10년 간 국내 산업 전체 정규직 비중; 6. 13개 GP 포트폴리오사 중 임직원 수 확인이 가능한 244개 기업의 최근 2024년 기준(Exit 기업은 Exit 시점 기준) 정규직 비중 기준

Source: KOSIS; 고용노동부; Bain Analysis

인수 후 적극적 추가 자본 투입 통한 밸류업 또는 턴어라운드 노력 지속

보유기간 내 추가 자본 투입

국내 모든 PEF 사
최초 투자 이후 포트폴리오사에 유상증자를 집행한 사례 보유
(321곳 중 55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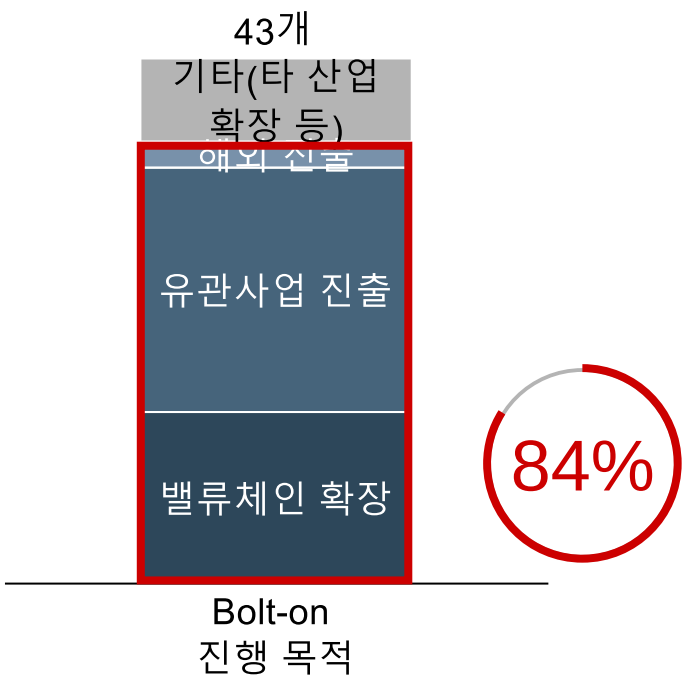
최초 투자금액 대비

47%

평균 투자액
690억 원

Bolt-on 투자 집행

PEF는 **밸류체인 내** 또는 **인접 산업 확장**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볼트온**을 추진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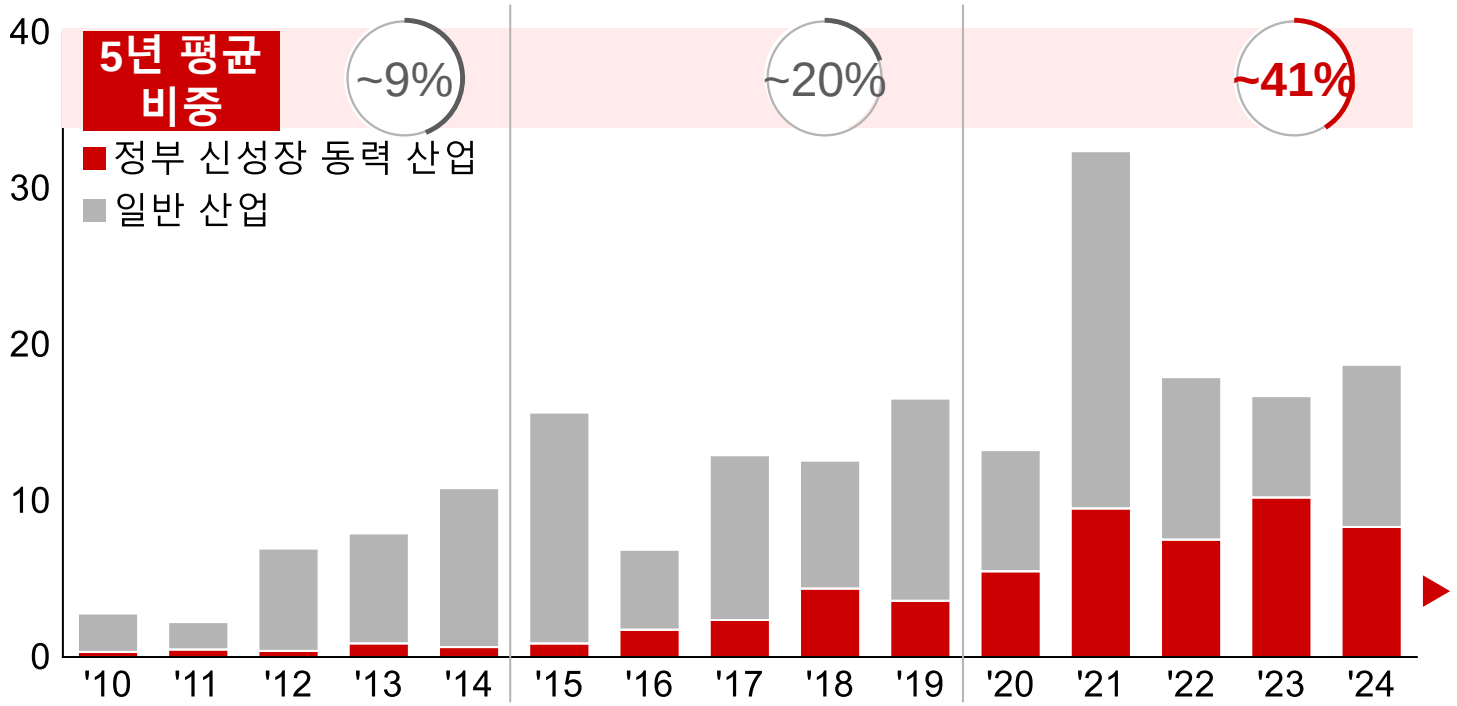


84%

1. 13개 GP 포트폴리오사 중 파악이 가능한 업체 321곳 대상 Entry 시점부터 최근 '24년까지(Exit 기업은 Exit 연도까지) Capital Injections을 진행한 적이 있는 기업 기준; 2. 13개 GP 포트폴리오사 중 파악이 가능한 업체 Entry 시점부터 최근 '24년까지(Exit 기업은 Exit 연도까지) Bolt-on을 진행한 적이 있는 기업 기준 | Source: Bain Analysis

AI, 바이오, 신재생에너지 등 국가 미래 핵심 산업에 높은 수준의 투자

정부 신성장 동력 산업 거래 규모 비중 (국내 PEF 딜 규모, USD B)



정부 신성장 동력 산업

- AI / 로봇 / 반도체
- 바이오 / 헬스케어
- 신재생에너지 / 자원
- 우주 / 항공 / 방위 산업
- 차세대 모빌리티
- 차세대 전력/통신

총 누적 금액
~57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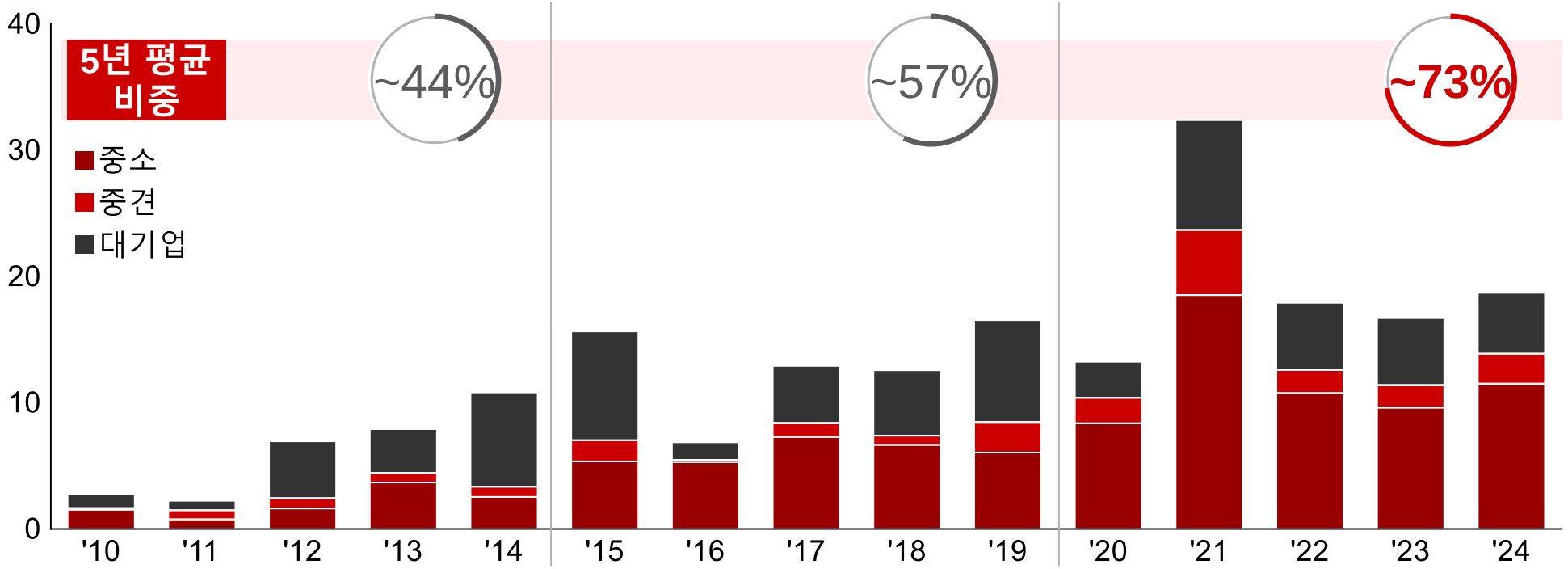
총 누적 건 수
~782건

건 당 평균 금액
~$73M

Note: 신성장 동력 산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정의한, 외교·안보 측면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및 연관 산업에 영향이 크며, 신기술·신산업 창출 등 미래혁신의 기반이 되는 기술을 의미하며 반도체·디스플레이, 인공지능, 첨단바이오 등 12개 분야 포함 | Source: AVCJ; Bain Analysis

국내 중소 / 중견 기업 중심 투자로 기업 체질 개선 및 경쟁력 강화 지원

전체 PEF 딜 내 기업규모별 비중 (국내 PEF 딜 규모, USD B)



총 누적 금액
~123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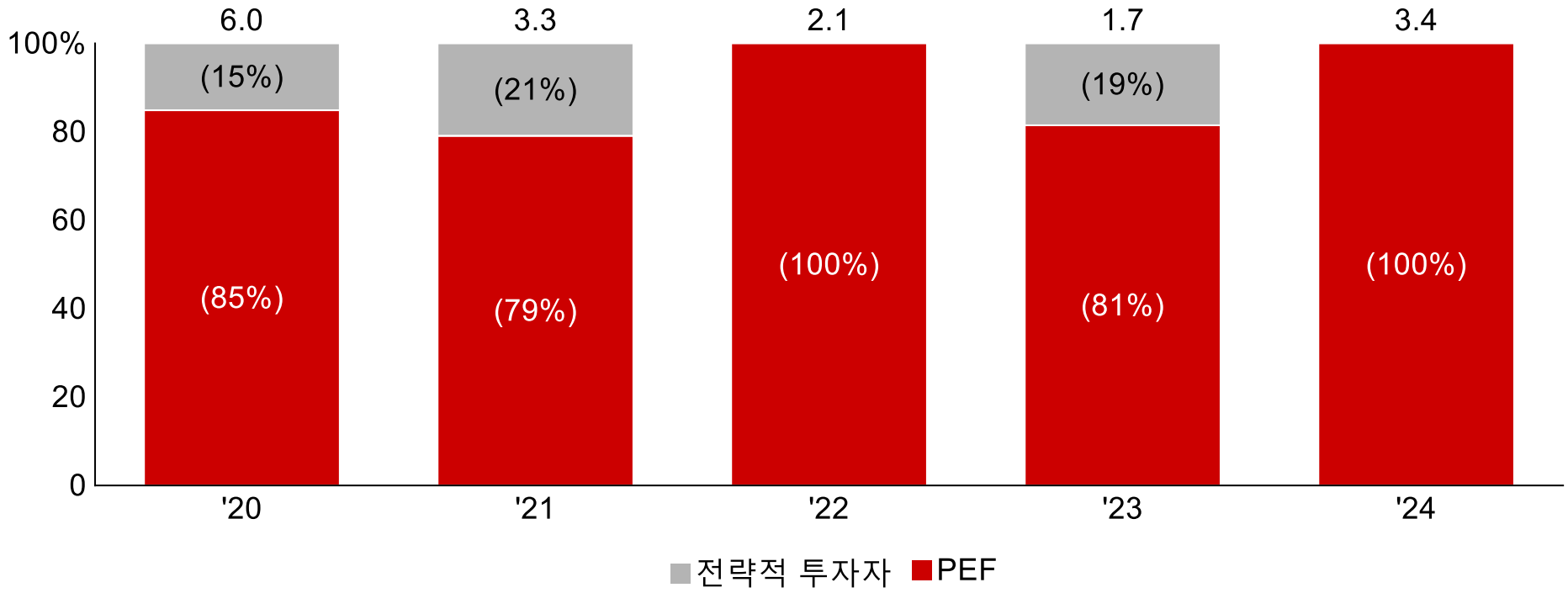
총 누적 건 수
~1,684건

건 당 평균 금액
~$73M

Note: 국내 전체 PE Deal Value 기준 (단, 인수 대상이 재무정보 공개 대상인 경우에 한함); 기업규모는 매출 기준으로 적용하였으며, 중소기업은 매출 1,500억원 미만 기업, 중견기업은 매출 1,500억원 이상, 5,000억원 미만 기업, 대기업은 매출 5,000억원 이상 기업을 기준으로 함 | Source: AVCJ; Bain Analysis

대기업들의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 통한 핵심사업 집중 및 효율경영 지원

연도별 카브아웃 딜 규모 및 인수주체 비중 (USD B)



PEF 인수 총 누적 금액

~15B

총 누적 건 수

~36건

건 당 평균 금액

~$417M

Note: USD 100M 이상 투자건 대상
Source: AVCJ; Bain Analysis

03

한국 PEF 산업 향후 과제

섹션 요약

- **규모 증대:** 국내 PEF는 글로벌 PEF 대비 절대 규모상 아직 열위로 국내 PEF 또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위한 추가 성장 및 육성이 필요합니다.
- **멀티에셋 전환:** 해외는 바이아웃 외 인프라, 부동산, 크레딧, 세컨더리로 다변화하며 성장 중으로 국내도 바이아웃 편중 해소 여지가 큽니다.
- **섹터 및 밸류업 전문성 강화:** 인수가격이 지속 상승하는 (글로벌 중앙값 EV/EBITDA ~12x) 환경에서 투자 라이프사이클 전반 전문성과 포트폴리오 밸류업팀(오퍼레이션, 데이터/AI) 강화가 필요합니다.
- **글로벌화 및 크로스보더 투자 활성화:** PEF의 누적투자 1,690건 중 24건, 총 1,500억달러 중 90억달러 만이 크로스보더투자로 현지화, 공동투자를 확대해야 합니다.
- **LP 다각화:** 글로벌 PEF 시장은 운용 자본 출처가 기관 및 프라이빗 웰스가 혼합, 다변화된 구조이며, 국내도 LP 다변화로 자금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높여야 합니다.

01

지속 성장 및 규모 증대

02

바이아웃 중심 → Asset class 다변화

03

섹터 및 밸류업 전문성 확대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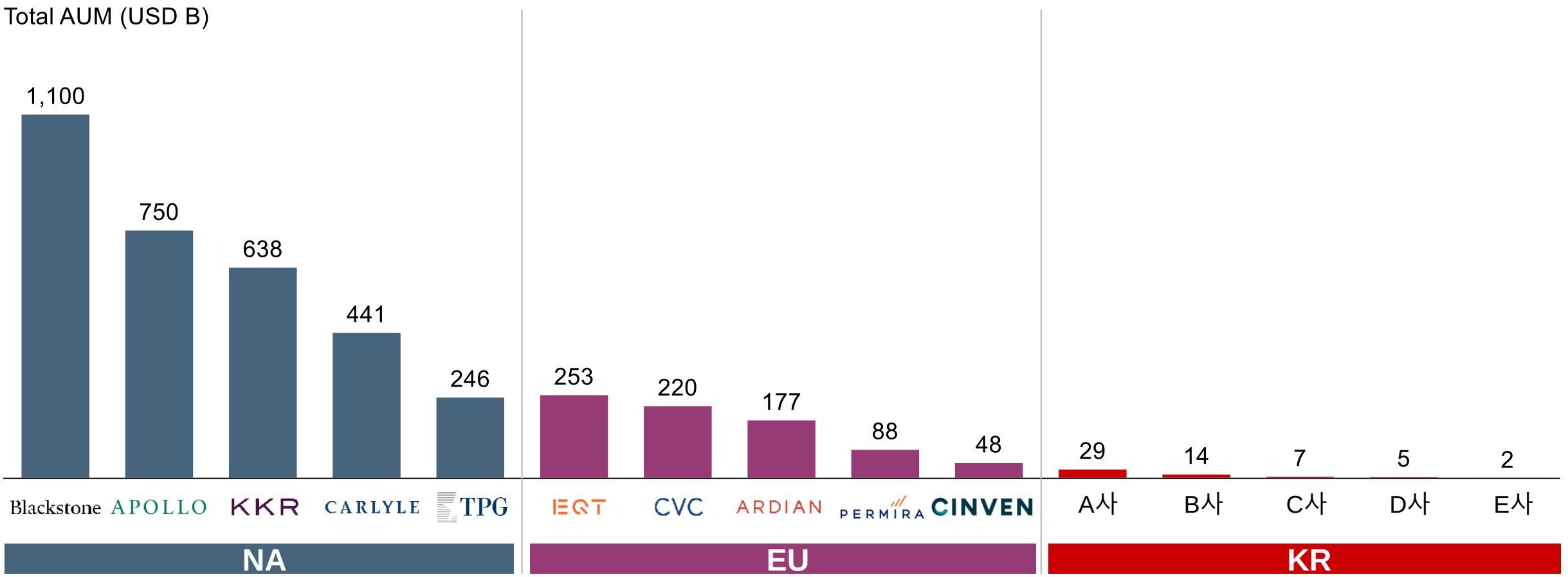
크로스보더 딜 확대

05

LP 다각화

1

국내 PEF는 글로벌 PEF 대비 절대적 규모 열위로, 향후 지속 육성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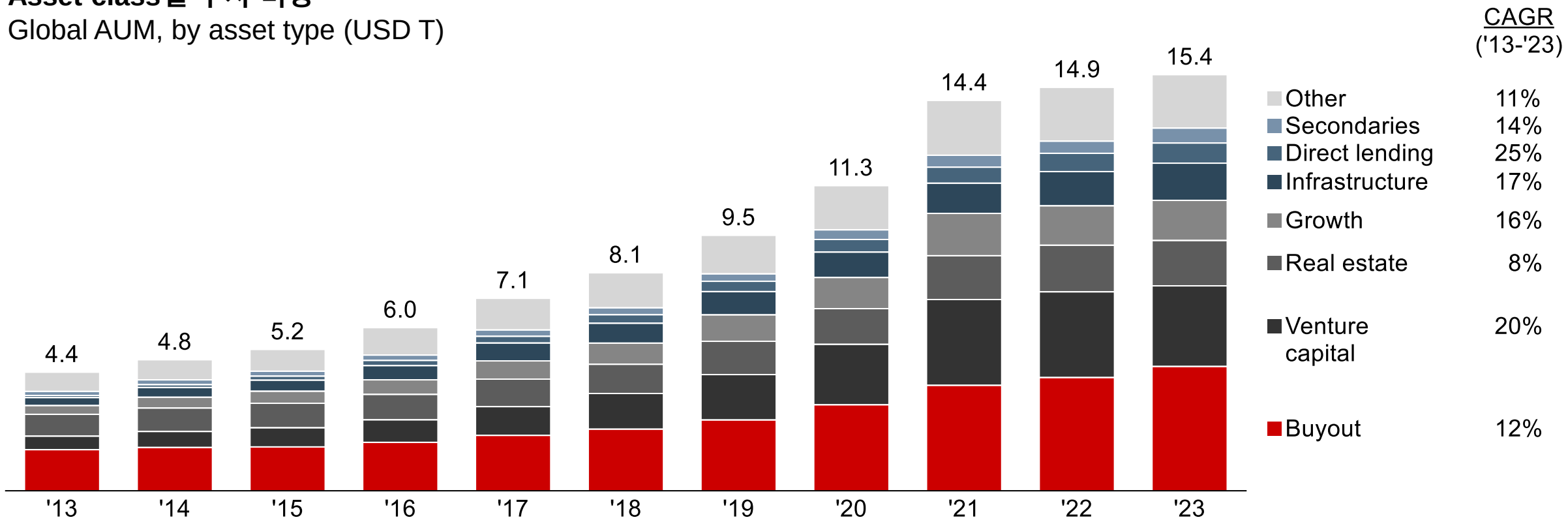


Note: AUM은 바이아웃 외 타 Asset Class를 모두 포함함 | Source: 금융감독원; Dealogic; Capital IQ; Bain Analysis

글로벌 PEF들은 asset class 다변화하며 성장 중

Asset class별 투자 비중

Global AUM, by asset type (USD 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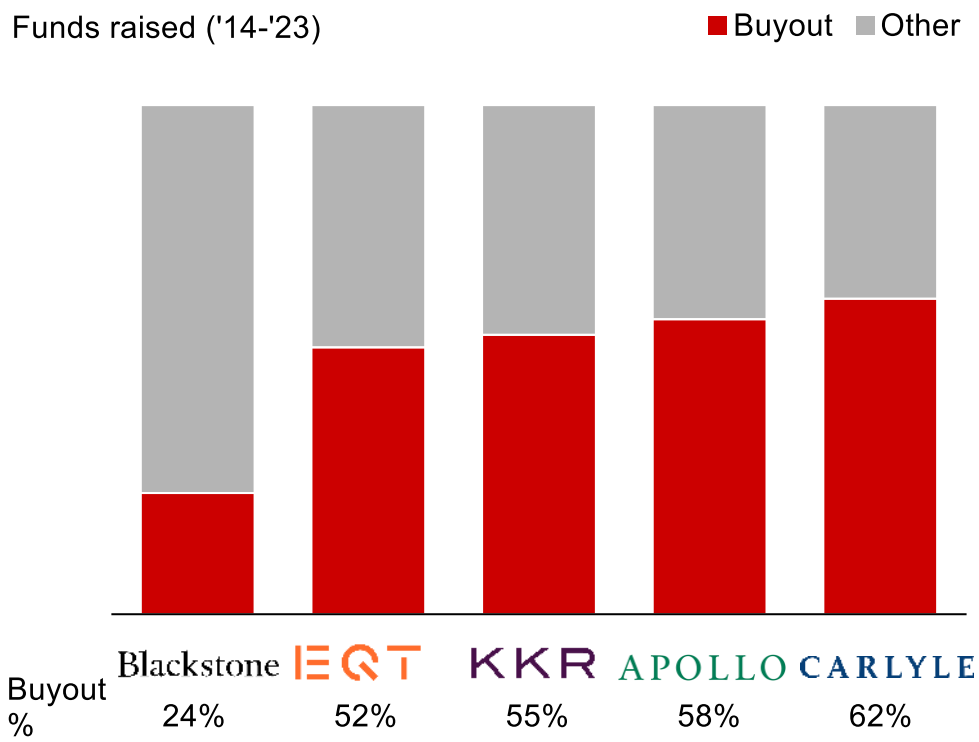


Source: Preqin; Bain Analy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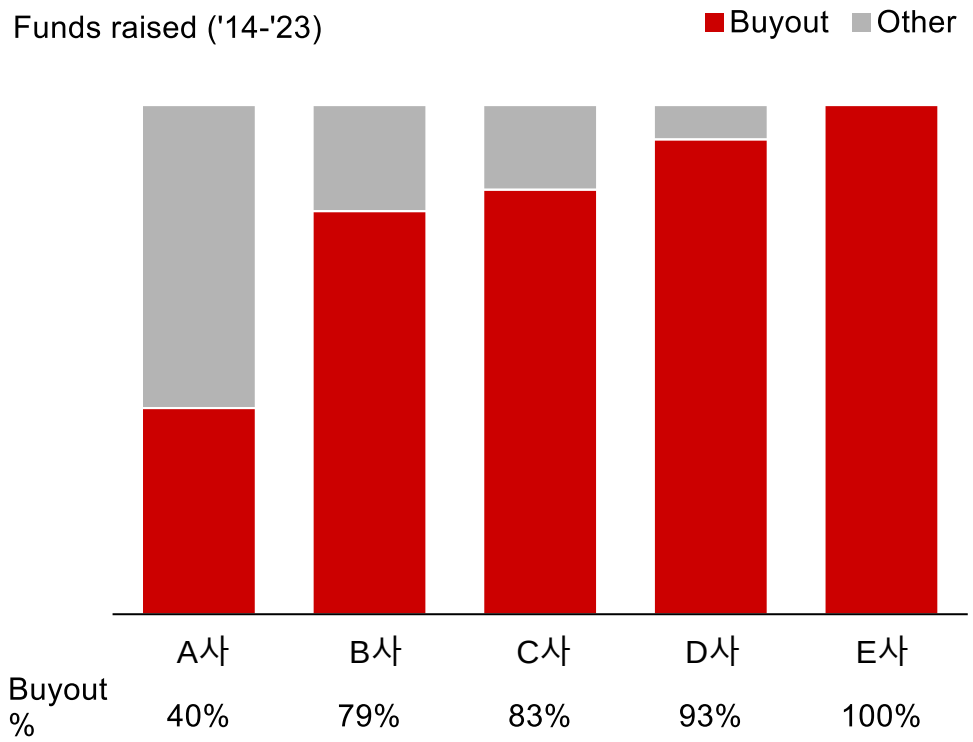
국내 PEF는 바이아웃 중심으로 향후 다각화 잠재력 보유

Asset class별 투자 비중

글로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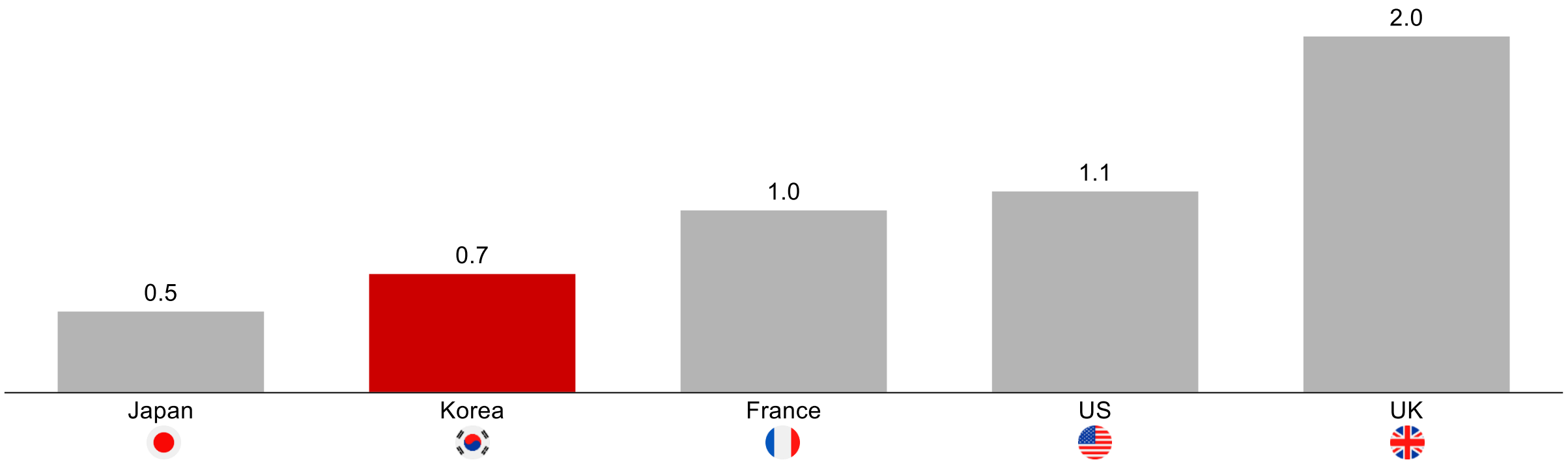
국내



Source: Preqin; 금융감독원; Bain Analysis

국내 PEF 바이아웃 또한 타 선진시장 대비 추가 성장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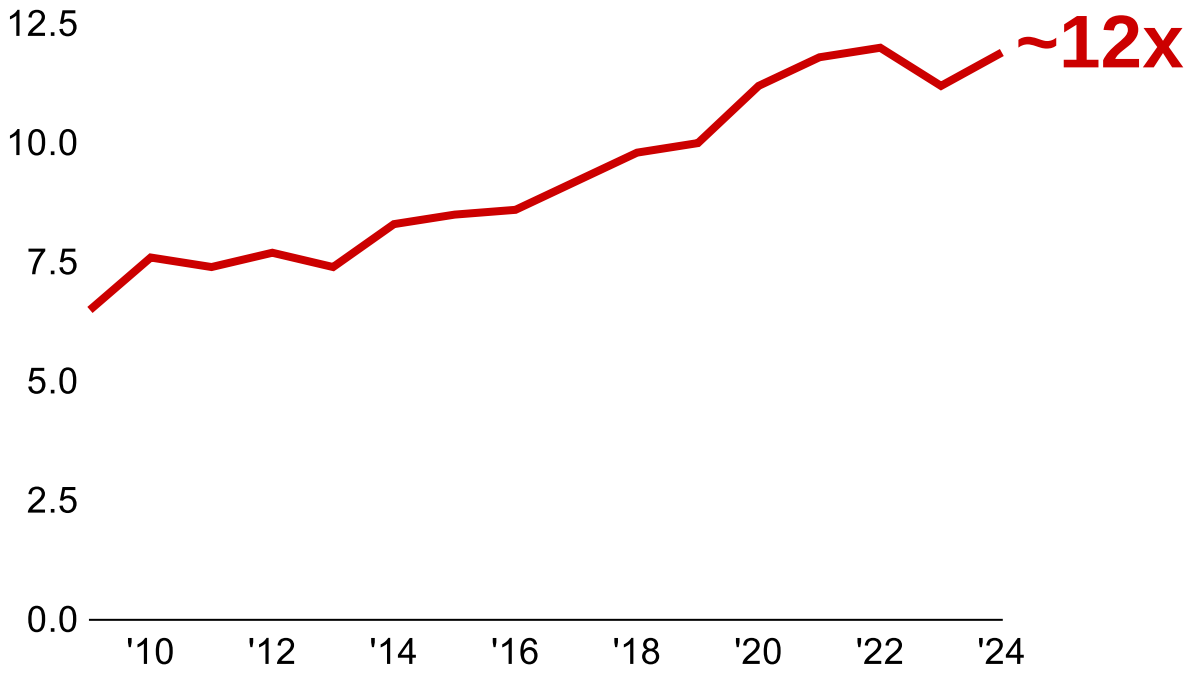
GDP 대비 바이아웃 딜 규모 (’20-’24 평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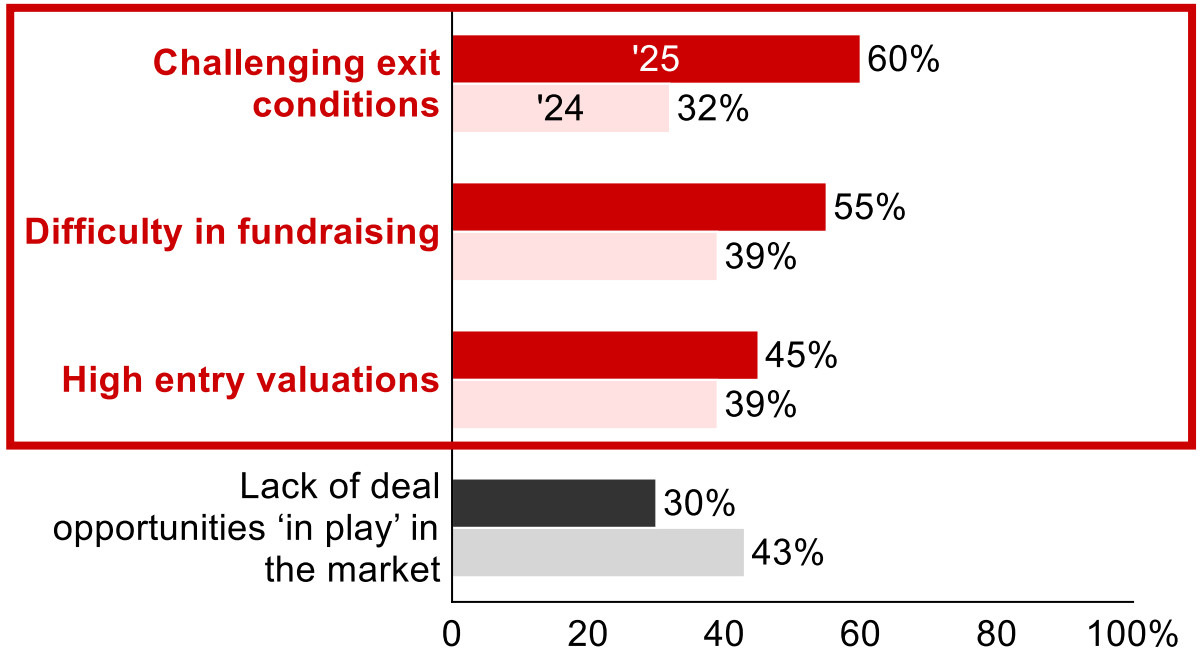
Source: Dealogic; Capital IQ; Bain Analysis

인수 가격 상승으로 PEF life cycle 전반에 걸쳐 전문성 강화 필요

글로벌 바이아웃 EV/EBITDA multiple 중앙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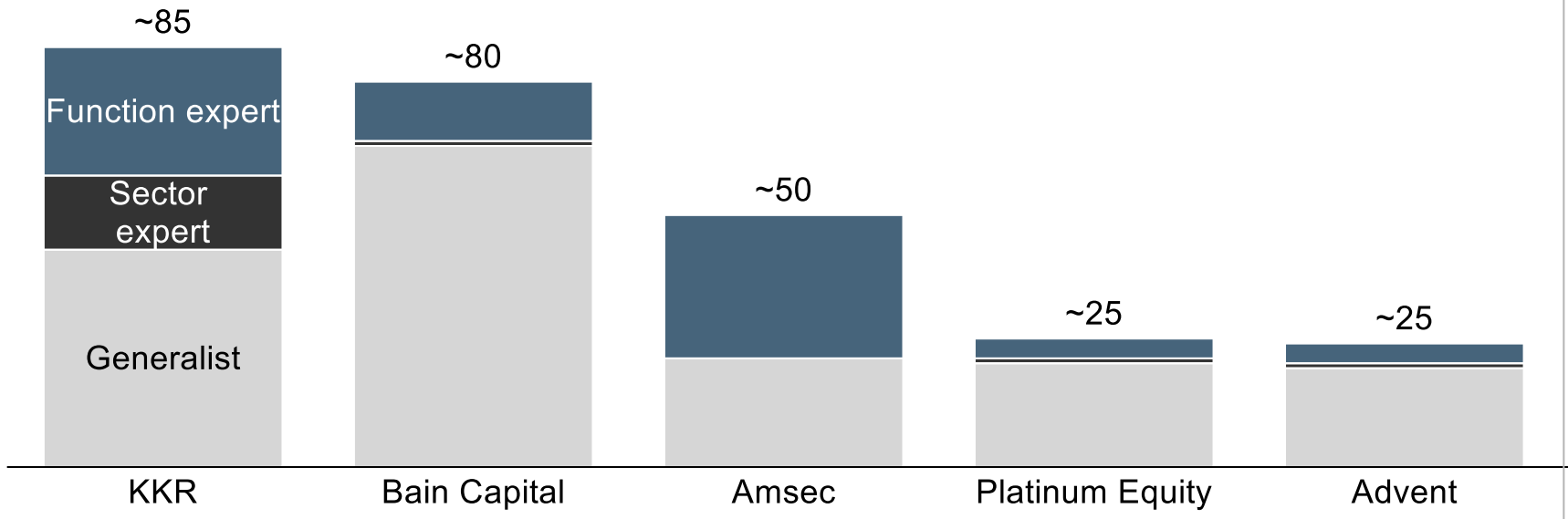
현재 시장에서 겪고 있는 주요 과제/우려 사항은 무엇입니까? (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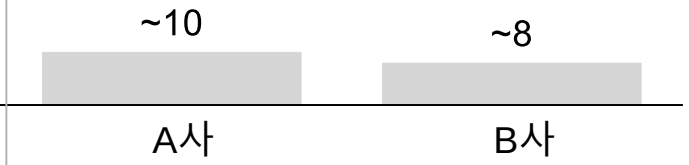
Source: Bain 2025 APEC Survey (N = 100); Lit. Search; Bain Analysis

국내 PEF는 투자 후 기업가치 증대 위한 전문 조직 강화 필요

글로벌 PEF 포트폴리오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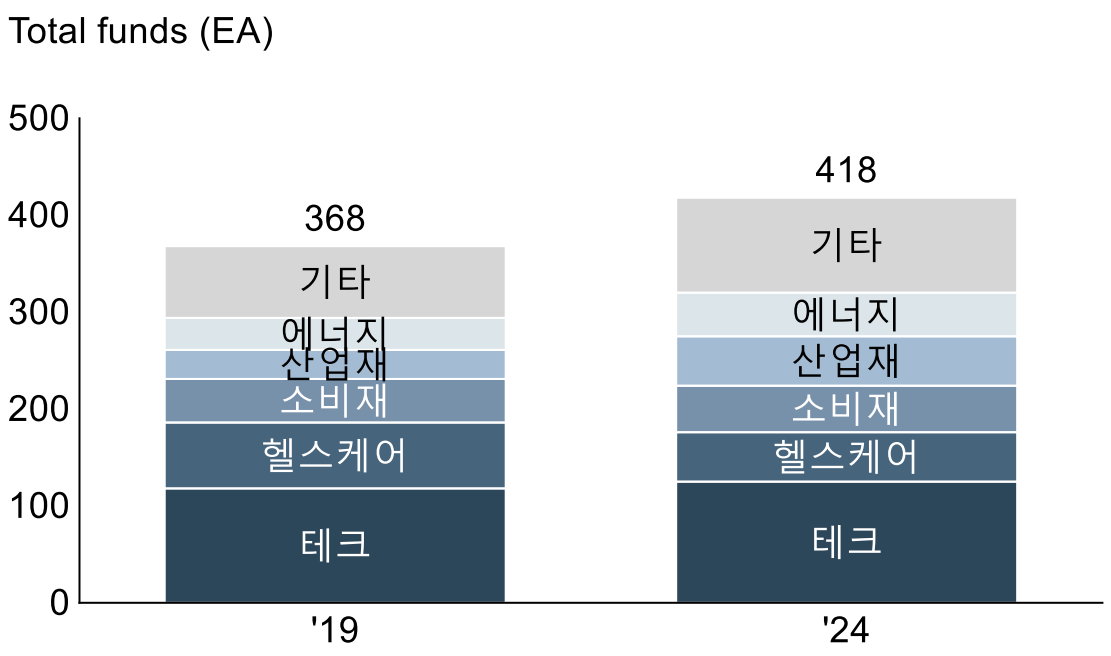
국내 PEF 포트폴리오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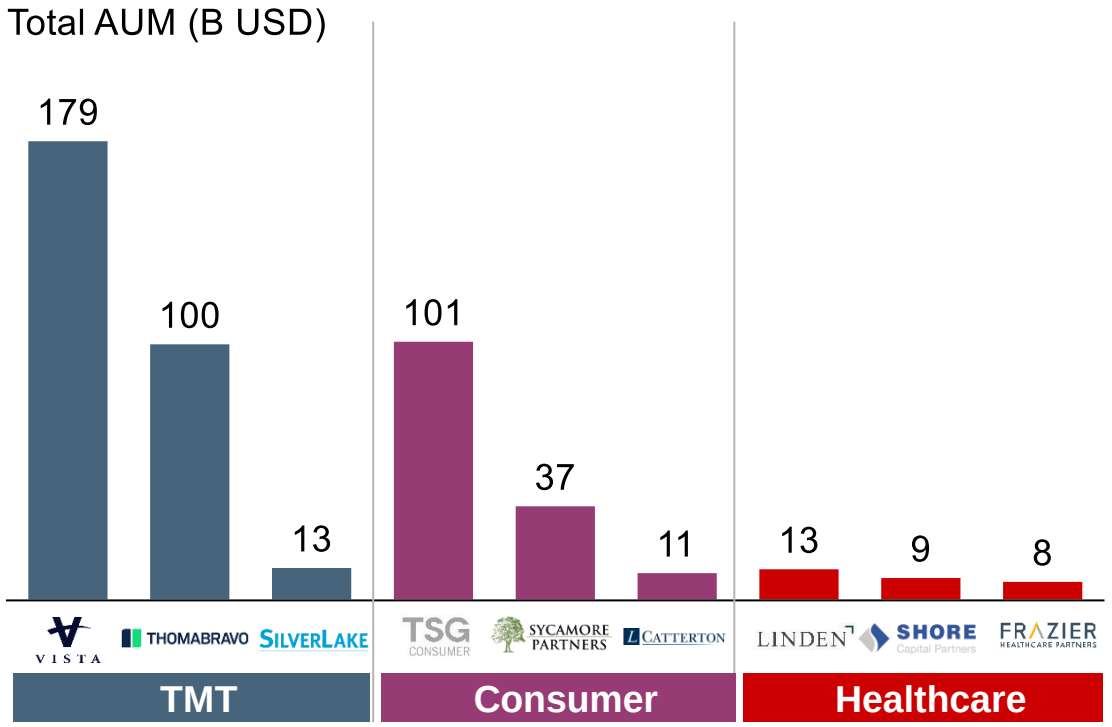
Note: 글로벌 PEF 포트폴리오 팀은 북미/유럽/아시아 포함, 2023년 8월 기준; 국내 PEF 포트폴리오팀은 해외 사무소 새 포트폴리오 전담팀 인원 포함, 2024년 말 기준
Source: Company Website, LinkedIn, Preqin; 국내 업계 인터뷰; Bain Analysis

글로벌 시장 내 다수의 섹터 전문 펀드 존재하며 AUM 규모도 큼

북미 섹터 전문 펀드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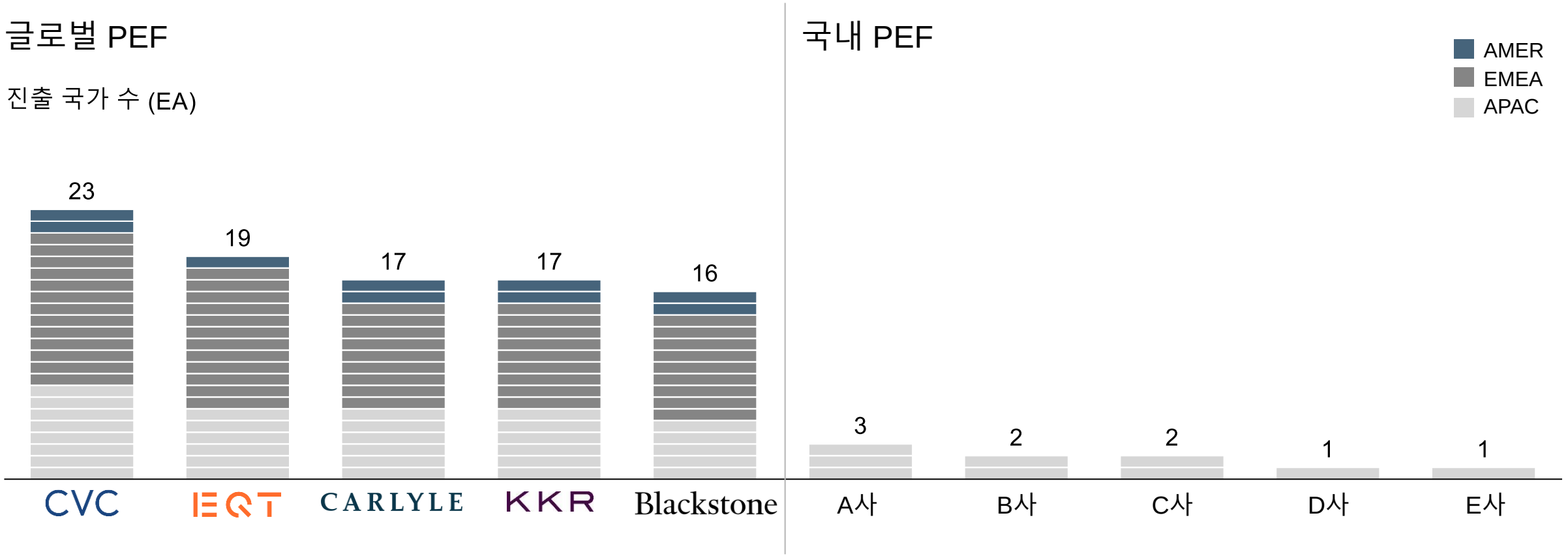


북미 섹터 전문 PEF AUM (USD B)



Source: Preqin; Company Website; Bain Analysis

국내 PEF는 지속 성장을 위해 적극적 해외 확장 필요



Note: 사무소 설립 국가 기준
Source: Lit Search; Bain Analysis

국내 PEF는 보다 적극적인 크로스보더 투자 필요

크로스보더 딜 건 수 비중 (%)

국내 PEF 누적 M&A
총 ~**1,690** 건 중 **24**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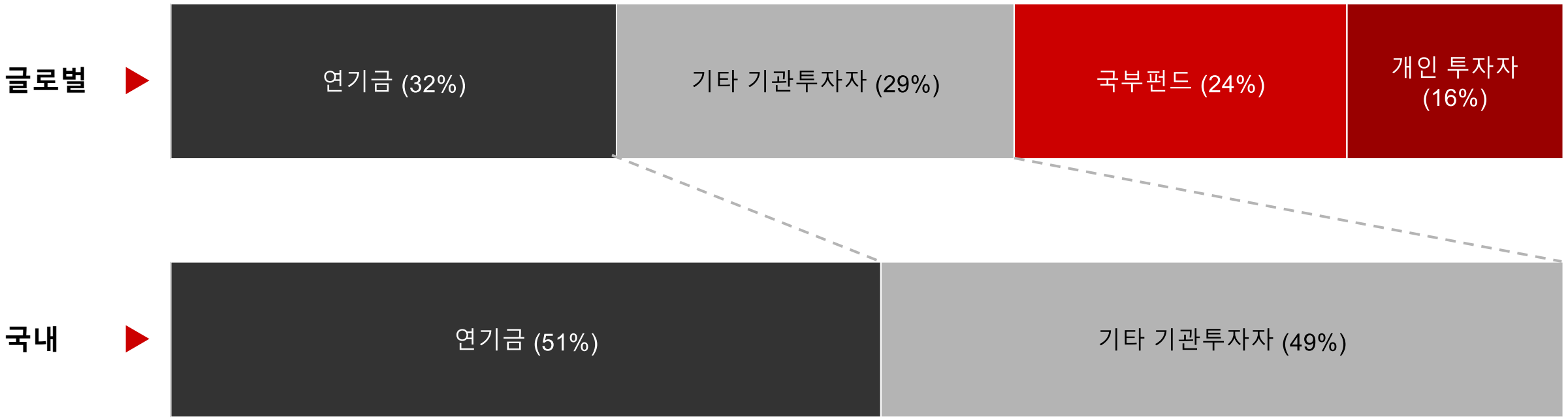
크로스보더 딜 금액 비중 (%)

국내 PEF 누적 M&A 딜
총 ~**150B 중 9B**

Note: '10-'24년 기준; 국내 PEF의 해외 오피스 주도 딜은 크로스보더 딜에서 제외
Source: Capital IQ; Bain Analy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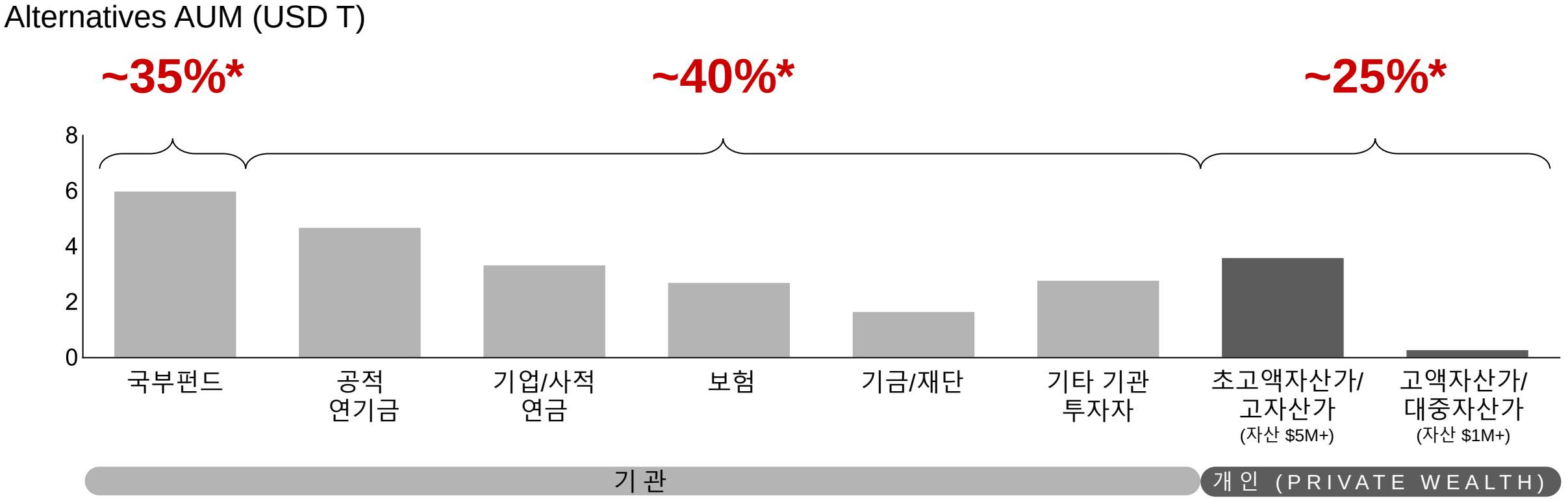
LP 다각화 통한 자금 모집 안정성 및 연속성 강화 필요

Fund raising source별 비중 (’23, %)



Source: Preqin; Global Data; Lit. Search; Bain Analysis

글로벌 PEF는 SWF, HNW 등 다양한 LP pool 기반으로 지속 성장 전망



*향후 '23-'33년 AUM 성장률
Note: 초고액자산가는 자산 $30M 이상, 고자산가는 자산 $5M 이상 $30M 미만, 고액 및 대중자산가는 $1M 이상 $5M 미만
Source: Preqin; Global Data; Bain Analysis


THANK YOU
BAIN & COMPANY